

보도시점 2024. 9. 1.(일) 12:00 (월요일 조간) 배포 2024. 8. 30.(금)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로 지자체 6곳 선정...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

- 광역 2곳(충북, 충남) 및 기초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지자체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2024년도 환경교육도시’를 공모한 결과, 광역지자체 2곳(충청북도, 충청남도)과 기초지자체 4곳(은평구, 서대문구, 양평군, 김해시) 등 총 6곳*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 지자체명 순서는 직제순

이번 환경교육도시 공모는 올해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12곳의 지자체(광역 3곳, 기초 9곳)가 신청했다.

평가는 △환경교육 추진 기반, △환경교육 성과, △환경교육 계획의 우수성 등을 중점으로 이루어졌으며 교육, 환경교육, 환경행정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들이 서류와 현장 평가를 거쳐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6곳의 지자체들은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교육도시 운영을 통해 탄소중립을 실현하려는 지자체장의 의지도 매우 높았다.

환경부는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주도의 환경교육 활성화의 본보기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정 기간(’25.1.1~’27.12.31) 동안 전문가 상담(컨설팅)과 환경교육 도시 간 상호 협력 기회를 제공하며, 환경교육토론회(포럼)를 통해 우수 성과를 전국에 알릴 예정이다.

환경교육도시 지정은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도에 처음 도입되어 올해 6곳이 지정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지정된 환경교육도시 13곳*을 포함해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도봉구, 안산시, 용인시, 서산시, 수원시, 광명시, 시흥시, 창원시, 통영시

한명실 환경부 환경교육팀장은 “환경교육도시를 통해 지역으로부터 출발하는 환경교육의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실천형 환경교육 확산을 도모할 것”이라며, “올해 지정된 신규 환경교육도시가 지역 기반 탄소중립 실현의 좋은 본보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붙임 1.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2.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자체별 우수한 점. 끝.

담당 부서	환경부 환경교육팀	책임자	과 장	한명실 (044-201-6531)
		담당자	사무관	노현진 (044-201-6536)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붙임1

2024년 환경교육도시 지정 개요

- (근거)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
- (목적)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기반, 협력, 교육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여건이 잘 갖춰져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환경교육도시로 지정·지원하여 지역환경교육 실행기반 강화 및 지역 중심의 탄소중립 실현
- (지정대상) 환경교육 추진 기반·성과·계획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
- (지정기간) 3년(‘25.1.1~’27.12.31)
- (지정요건)
 -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한 계획 또는 추진실적이 우수할 것
 - 환경교육 추진 기반이 우수할 것
- (지정절차) 공모에 응한 지자체를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서면, 현장) 후 환경교육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심사기준)
 - 서면심사(100점) : 기본요건 충족시 심사 개시, 환경교육 추진 기반의 우수성(40점), 환경교육 성과의 우수성(25점),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우수성(35점)
 - * 지역 환경교육조례 제정 여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 여부, 지역환경교육계획 수립 여부
 - 현장심사(50점) : 환경교육기반(20점), 환경교육성과(20점), 도시운영계획(10점)
- (지원사항) 환경교육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 환경교육도시 지정서 수여 및 지자체 홍보
 - 환경교육도시 사업 컨설팅 및 도시 간 협력 기회 제공 등
 - ※ ’24년부터 국고보조금 예산 지원은 없음
- (지정현황) 19개 지자체 지정

지정년도(기간)	지자체
2022년(6개) (2022.10.1.~2025.9.30.)	(광역) 인천광역시, 경기도 (기초) 서울특별시 도봉구, 경기도 안산시·용인시, 충청남도 서산시
2023년(7개) (2024.1.1.~2026.12.31.)	(광역) 부산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기초) 경기도 수원시·광명시·시흥시, 경상남도 창원시·통영시
2024년(6개) (2025.1.1.~2027.12.31.)	(광역) 충청북도, 충청남도 (기초) 서울특별시 은평구·서대문구, 경기도 양평군, 경상남도 김해시

지자체	우수한 점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 자체 환경교육 계획 수립 및 이행, 지역환경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 등 전반적으로 환경교육 기반을 잘 갖추고 있으며, 지자체장의 ‘환경교육도시’ 운영 의지와 추진계획이 뛰어남
충청남도 (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청남도 내 15개 모든 지자체에 기초환경교육센터 지정 및 환경교육 조례가 제정되어 있음. 사회환경교육 기관도 타지자체에서 비해 다수 지정(5개)됨. 전국 최대 탄소 배출지역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탄소중립경제특별도’를 선포하며 탄소중립 환경교육 정책 추진 중.
충청북도 (광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북교육청에서 직영으로 환경교육센터(와우)를 운영하며 교육청 및 학교와 환경교육협력이 우수함. 전국 최초 영유아 전문연수기관 ‘영유아교육연수원’을 운영하는 등 전주기 환경교육체계를 갖추고 있음.
김해시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의 환경교육에 대한 의지가 강하며 지방비 내 환경교육예산 배정이 매년 증가함.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기업 등 업무협약을 통해 협업하는 모습이 돋보임. ‘중학교 환경교과 자유학기제’ 운영 등 학교환경교육도 우수함.
서대문구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3!5!5!프로젝트(30만명 구민의 30%, 만 5세 의무교육을 시작으로 50세 이상 생애주기 맞춤형 환경교육)로 향후 환경교육에 대한 계획과 목표가 명확하며, ‘환경 동화책’, ‘기후모아App’ 등 지역 특색 프로그램이 뛰어남.
은평구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탄소중립 시범거리 조성’을 통해 학교 및 상가 등 지역주민과 함께 일상 속 환경교육을 실행하였고, 기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되어 있어 대학과 연계한 환경학습권 실현 계획이 우수함.
양평군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일한 군 단위 지자체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군 단위에서 노력하는 모습이 돋보이며, 특히 환경교육기관·단체와 연대가 잘 이루어짐. 1인당 연간 환경교육 예산이 신청 지자체 중 가장 많고, 관내 ‘환경교육 우수학교(대아초)’가 지정되어 있는 등 학교 환경교육도 우수함.